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 위한 외길 연구

「韓國憲法史」로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받은 金哲洙 교수

“제 스스로 불만과 부족함을 많이 느끼던 책이라 사실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상을 받게 돼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내용으로나 체제로나 제목에 걸맞게, 보다 번듯한 꼴을 갖춰 퍼내야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韓國憲法史」(대학출판사)로 한국일보사 제정 제29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자로 선정된 金哲洙 교수(56·서울대 공법학과). 큰 상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과연 상을 받을 만한 책을 냈는가 하는, 단순한 겸양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학자적 엄격성을 엿볼 때비친다.

그러나, 저자의 그런 불만과 무관하게 이 「한국헌법사」가 갖는 의의는 결코 만만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일관된 체계의 통사적 저술이 아니라는 약점을 훌륭히 벌충하는 많은 미덕들이 그 속에 있다. 특히, 혁명과 쿠데타, 헌정중단이 잇달았던 격동의 한국현대사 속에서 경험한 9차례의 헌법개정을 ‘野의 입장’에서 비판, 헌법정책의 실천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있어야 할 헌법’의 방향정립에 치중

“대한제국의 헌법이란 수 있는 ‘大韓國國制’와 상해임시정부의 ‘臨時憲法’에서 제6공화국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헌법들을 반성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헌법개정 때마다 앞으로 어떤 헌법이 우리에게 적합한가를 학문적인 입장에서 제시했던 글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무게중심은 헌법의 사적 고찰보다는 ‘있어야 할’ 헌법의 방

좋은 헌법이 좋은 정치를 있게 한다는

신념 아래 김교수는 격동의

한국현대사가 경험한 9차례의

헌법개정을 비판, 헌법정책의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공부욕심, 일욕심이 남다른 그는

방향을 맞은 요즘도

자료와 서류들로 온통 뒤범벅이 된

자신의 책상 앞에 가 앉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학교로 출근한다.

향 정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김교수가 생각하는 있어야 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헌법.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김교수는 우리의 헌정사가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경험한 9차례의 개헌에 대해 비판적이다. 대부분의 개헌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다는 측면보다는 권력구조의 개편에 치중됐고,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은 다음의 합법화과정의 산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국회 권한의 강화 등 여러면에서 이전의 헌법에 비해 훌륭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설치규정을 6공화국 헌법의 가장 뛰어난 장점으로 꼽는다.

“국민기본권의 최후보루여야 할 법원이 그동안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행위도 제대로 규제해오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헌법이 권력을 구속하고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권력을 구속할 수 있게 하는 강제적 장치가 됩니다. 정치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위헌적인 입법행위로 침해되는 국민기본권을 보호해 주죠.”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같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설치의 애초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임을 강조하는 김교수는, 그러나 일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사정이 나아지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형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데,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 정치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학계에서는 헌법을 일러 公法이 아닌 ‘空法’이라고까지 자조했습니다만, 이제 그 비어 있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메꿔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김교수는 「한국헌법사」의 가장 큰 특색으로 ‘바람직한 통일헌법’편을 꼽고 있다.



“단일저작의 通史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이번 수상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하는 김철수 교수

남북한 헌법의 꼼꼼한 비교분석을 통해 통일헌법의 이념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남북이 국제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가연합적 성격의 헌법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신뢰가 다져질 경우 미국이나 서독과 비슷한 연방헌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내각제 신봉하나 최근의 개헌론엔 회의적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의 유학생활을 거치며 30여년간 헌법학 연구 외길을 걸어온 김교수는 그동안 헌법개정 때마다 여러번 참여를 권유받았지만, 한반도 官邊을 기웃거리지 않은 학자적 소신과 양심을 지켜오고 있다. “학자적 신

賀新禧

독자와 더불어
출판문화의 꽃을 피우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새아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權炳壹
사무국장 李斗暎

謹賀新年

출판산업의 전전한
발전을 위하여 새해에도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1989년 새아침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이사장 鄭鎮肅
사무국장 崔學秀

謹賀新年

책속의 진리를
나누어 갖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아침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尹炯斗
전무이사 金英僊

념을 관찰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되지 않은 참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의 복안에 자구수정이나 해주는 '粉飾'작업 정도로 학자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감시와 비판을 위한 재야적 입장에서 대안을 '밖'에서 제시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김교수는 생각하며,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김교수의 학자적 신념은 '민주주의적으로' 열려 있다. 예컨대, 1980년의 안개정국 속에서 김교수와 林鍾律, 梁建, 梁好民, 張乙炳, 韓貞一 등 여섯 학자들이 1개월간의 토론을 거쳐 제시한 헌법안인 이른바 '6인學者案'이 대표적인 경우. 그때나 이제나 김교수는 의원내각제를 이상적인 권력구조로 신봉하고 있지만, '직선제 대통령'으로 모아졌던 당시의 국민적 합의를 존중해 이상을 현실에 양보, 대통령중심제 헌법안에 동의했다.

그런 만큼 요즘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론에 대해서도 김교수는 비판적이다. 국민적 합의를 좇아 마련된, 그리고 이전의 헌법들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 6공화국 헌법을 시행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고치겠다는 생각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인들이 '立憲'의 원칙만 준수한다면 현행헌법 아래서도 충분히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교수의 확신이다.

"사실 6공화국 헌법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략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개정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일단 만들어진 것이니까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자세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

리 헌법사는 '헌법개약사'의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헌법개약사'의 오명 벗어나야

연전에 펴낸 시사칼럼집의 제목처럼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자신의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김교수는 요즘 '좀더 밀도있는' 「기본권론」을 준비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가칭 「분단국헌법과 통일헌법」이란 저술도 계획하고 있다. 예전엔 주로 교과서를 많이 집필했었는데, 앞으로는 「한국헌법사」에서 짚게 드러냈던 헌법정책에의 실천적 관심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향하는 작업에 치중할 작정이다.

또, 재직중인 서울대의 법학연구소 소장으로서 「法學全書」시리즈 출간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공법학회 회장일을 맡아 하며 자칫 고립분산적이기 십상인 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상호교류와 토론을 통해 조직화하는데도 열성을 보인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활성화 문제를 주제로 개최했던 국제학술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만하다.

그런 공부욕심, 일욕심 때문인지 김교수에겐 별다른 취미가 없다. 방학을 맞은 요즘에도 거의 매일같이 학교로 출근, 온갖 자료와 서류들로 뒤범벅이 된 그의 책상 앞에 가 앉곤 한다. 다만, 한가지 '외도'라면 젊었을 적부터의 변치 않는 즐거움인 등산을 들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순수한 즐거움으로 서보다는 "제대로 공부하려면 체력이 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강철주 기자

무게있는 단행본 저술 주종 이뤄 제29회 '한국출판문화상' 수상도서

한국일보사 제정 제29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자로 「韓國憲法史」의 金哲洙교수와 「韓國服飾風俗史研究」의 趙孝順교수가, 제작상 수상도서로 「韓國의 住居民俗誌」 등 12종이 선정, 발표됐다.

모두 95개 출판사 및 연구기관에서 317종 843권을 출품, 치열한 경합을 벌인 가운데, 심사위원(高永復, 金東旭, 羅逸星, 韓永愚)들은 18종의 본심 통과 도서 중 "우리나라 헌법의 현실에 대한 교훈과 미래적 비전의 제시"("한국헌법사") 및 "기층문화의 한 흐름을 문화사적 분석틀로 체계화"("한국복식풍속사연구")한 점을 들어 김철수, 조효순교수를 저작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출판도서들은 예년에 비해 제작능력을 앞세운 대형전집물이 준 대신, 우리사회가 일구어낸 정신적 업적을 충실히 담은 단행본 저술들의 수준이 돋보인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수상도서 목록.

■저작상

「韓國憲法史」(김철수, 대학출판사)
대한제국헌법에서 제6공화국헌법에 이르

기까지의 모든 헌법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통일헌법'의 가능성을 제시.

「韓國服飾風俗史研究」(조효순, 일지사)

옷에 관한 다양한 풍속을 다루면서 그 속에 숨쉬는 민중의식과 복식심리의 변천을 분석.('출판저널' 20호 참조)

■제작상

「韓國의 住居民俗誌」(김광언, 민음사)

「장승」(황헌만, 열화당)

「언론연구원총서」(전4권) (한국언론연구원)

「山野草旅行」(윤국병·장준근·전길신, 석오출판사)

「하이디80」(교육문화사)

「한국의 새」(윤무부)·「한국의 동굴」(석동일, 아카데미서적)

「高句麗史研究 I·II」(연세대 국학연구원, 연세대 출판부)

「옛 보자기」(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

「韓國繪畫의 傳統」(안희준, 문예출판사)

「朝鮮王朝財政史研究 I·II·III」(김왕근, 일조각)

「우리말 분류사전」(남영신, 한강문화사)

「한국의 탈」·「한국의 탈춤」(임재해, 행림출판)

謹賀新年

아름답고 뜻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아침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金炳翼
사무국장 金義洛

謹賀新年

새해엔 더욱 알찬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1989년 새아침

한국2종교과서협회 이사장 李鍾泰

謹賀新年

철저한 내용심사로
우수한 학습참고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9년 새아침

학습자료협회 회장 林弘造
사무국장 金喆埴